



## 구도자가 되든지 지혜자가 되라

성인경

당신은 오늘 구도자(求道者)인가 아니면 방랑자인가? 지혜자(智慧者)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멀리 설악산 기슭까지 라브리공동체를 찾아오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도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지혜자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방랑자나 냉소자나 혹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부디 당신께서는 진리 안에서 방랑자나 냉소자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도 아니라 정직한 구도자가 되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각각의 기본 철학을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구도자의 철학

오늘도 배낭 한 개만 달랑 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 많다. '자유 LIBERTAS'와 '진리 VERITAS'의 도를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길을 떠난 사람은 많으나 도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아마 구도의 길을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구도자가 가져야 하는 바른 철학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는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 1. 자유를 찾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자유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는 매일 먹어야 하는 밥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일 시켜도 좋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라고 호소한 적이 있지 않은가?

철학적·정치적 부자유는 논외로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크게 세 가지에 얽매어 있다. 그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매몰되어 시류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간다. 둘째는 모든 인간은 법 혹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이 있는 한 불법과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육체로부터의 자유도 없다. 아무도 육신의 정욕과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굴레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종종 더 깊은 함정에 빠지기도 한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 보거나, 결혼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동거만 하거나 연애조차 안 한다거나, 세상과 육체의 쾌락을 멀리하려고도 해 본다.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업동설한에 거죽 떼기 하나만 걸치고 움막에서 금욕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수도사적 고행을 하면 자유를 찾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이런 금욕주의는 마치 옛 영지주의자들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는 모토를 외치며 사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것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나 요가, 단학 등과 맞아 떨어져서 신비주의로 통하는 첩경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반대는 자율(autonomous)이다.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해보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모든 길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맛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죄를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진짜 자유를 누리거나 죄를 이기거나 씻어내지는 못한다. 오히려 자기승배의 교만에 빠지거나, 자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으로 추락하기 쉽다. 가짜 자유를 찾아 다녔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 없이 살지 못한다. 자유에 굶주린 존재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참 자유를 찾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가?

## 2. 정직하게 ‘진리’를 사모하며 탐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엄격한 수행이나, 일탈, 금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부(富)나 혹은 정치적 투쟁에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참 자유는 진리에서 오는 것이며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 수행이나 투쟁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테투스(Epictetus, 스토아철학자)가, ‘제우스가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예수가 그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가 말한 ‘진리’라는 것은 ‘관념적인 진리’를 의미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친 상상이고 억설이다.

여기의 신약 헬라어 ‘진리(aletheia)’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믿을 만함’ ‘신뢰할 수 있음’ ‘진실’ ‘참됨’ 등을 의미하며 ‘베일이 벗겨진 실재’를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 실재와 지식을 강조한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진리(emet)’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밭을 딛고 서 있는 견고한 땅을 제공하는 실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와 체험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객관적 실재와 경험적 체험으로서의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찾던 ‘로고스(logos)’, 즉 논리적 진리로서의 예수다. 예수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이다(요14:6). 둘째, 예수의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 예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계시 자체이다(요17:17).

어느 것을 의미하든 예수 자신과 그분의 계시 말씀이 베일을 벗겨진 실재로서의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다. 이 진리는 인격적이며 체험적이며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리와 권력을 해체하거나 진리를 일종의 계

임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일탈 행위도 아니다. 참 자유의 근원은 오직 진리이며, 그 진리는 신神이며 인간이신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주는 자유는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다. 구도자들이 자나 깨나 정직하게 진리를 사모하며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신神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 진리가 될 수 없고 참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3. 전(全) 인격적으로 진리를 믿어야 한다.

여기의 '안다(kinosesthe)'는 것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지식(get a knowledge of perceive)을 말한다. 문자적으로는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분석하다', '확신하다'는 말이며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고 할 때 그 앎은 그 사람에 대한 단순한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힌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런 앎은 진리를 합리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탐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인격적으로 믿어 감정적인 결단과 행동이 동반되는 앎이다.

아무리 사랑에 빠진 처녀 총각이 서로를 잘 안다 해도, 매사에 성격이 부딪히며, 성생활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속속들이 아는 결혼 생활과는 다르다. 요한복음의 "안다"는 그리스 헬라어가 히브리적인 '앎'을 의미하는 "야다(yada)"란 말과 병치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앎은 '동침', '성관계를 갖다.'는 말로서 부부가 속속들이 아는 것이나 체험적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만약 부부간에 안다고 말 할 경우에 그것은 단순한 육체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나누는 정신적 상호 교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의 논리적 앎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나 대각(大覺)도 아니며 신유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므로 깨닫는 것'과도 다르다. 이런 앎은 '지적 자살(intellectual suicide)'이나 '맹신(blind faith)'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참 진리는 대부분 맑은 정신과 깨어 있는 지성으로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중에 깨달아진다. 때로는 토론과 논쟁 중에도, 직장이나 부업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깨달아지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 번 진리가 깨달을 때는 마치 영킨 신타래가 풀리듯이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경험이 있다. 이런 앎은, 부처가 열반 후 오도송(悟道頌)으로 불렀던 「마하박가」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다'고 외친 것과 다르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을 발견하고는 '휴레카(찾았다, 이거다)'라고 함성을 질렀던 것보다도, 더 감격적이고 가슴에 사무치는 변화다.

이런 앎은 옛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들려오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꾼 바울과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이다. 또한, 빌립보 성의 루디아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 즉 세계관이 바뀌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참된 앎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팎에서 진리를 아는 것보다 ‘느끼기를’ 더 강조하는 실존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던적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객관적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다’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신앙은 지성이면서도 동시에 체험적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느낌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 기독교 체계가 지성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방랑자들의 소망 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왕도는 없다. 구도자는 진리에 이르는 최고의 첩경은 자유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한다. 구도자는 자유의 근원은 오직 참 진리이며, 진리가 자유를 주리라는 사실을 사모하며 탐구해야 한다. 구도자는 진리에 대한 전인격적인 앎과 헌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진리 안에서 모든 구도자들의 발길이 자유로 뿔박질하기를 소망한다.

### 지혜자의 철학

한 여자 권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게 되었다.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국제대회 참석 차 오신 남편 회장님 내외분을 위해 준비한 방이었다. 호텔방에 들어가니 수십 개의 전등이 켜지고, 두 사람을 위한 욕탕 치고는 너무나 큰 월풀이 돌아가고, 최신 멀티비전과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그 분의 말씀으로는 “너무 비싸고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권사님은 지혜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등부터 끄기 시작했다. 남편이 “미국 로타리에서 사준 방이고, 여기는 부자 나라 미국이니 실컷 쓰고 갑시다.”고 말렸지만, 권사님은 “미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며 물 한 방울 전등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돌아오셨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분은 낭만도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분이 지혜자가 아니면 누가 지혜자일까?

#### 1. 목표를 이루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꿈과 뜻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꿈과 뜻을 이룰 줄 아는 방법과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제임스 팩커(James Packer)는 이렇게 정의했다. “지혜란 지고(至高), 지선(至善)의 목표 및 그 목표를 성취하는 분명한 수단을 볼 줄 아는 능력과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혜는 단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경영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전략적 사고(戰略的 思考)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취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가 껍데기 많거나, 영악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알면 오해이다. 그런 사람은 지식인이다. 지식인은 통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말한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는 쉽겠지만 지식이

많다고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 지혜자는 지식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얻는 것은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나은 것”(잠언 3:14,15)이다. 과연 우리는 금은보석이나 진주 목걸이보다 지혜로운 아버지나 어머니, 지혜로운 아들, 딸을 귀하게 여기고 탐내는가?

## 2.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좌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다. 즉 솔로몬 왕이 일 천 번제, 즉 양 1000마리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간구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혜’였다.(열왕기상 3:9)

그가 간구한 ‘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saw-kal, 창세기3:6)’은 ‘신중하게’, ‘이지적으로’란 의미가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호크마(khok-maw, 잠1;2, 8:11)’는 ‘공교한 지혜’, ‘재치’등으로 쓰이지만 ‘레브쇼미아(leb-shomeah)’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마음’ 혹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석되는 단어라고 한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은 곧 신(神)’으로 추앙받던 시대인데 솔로몬은 그런 탐욕에 집착할 수 있었지만 위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아래로 백성들의 탄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이요엘,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 평단, 88) 물론 하나님은 지혜, 즉 ‘들을 수 있는 마음’ 혹은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덤으로 재물과 수명도 같이 주셨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가 있으나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도 전에 자기 말부터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은 많으나 지혜가 없다.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이 몸에 붙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는 없다. 반항하기보다 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말하기 전에 잘 듣고 반항하기보다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집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굴뚝 청소를 시켰다. 얼마 후에 아빠가 두 아이를 불렀다. 한 아이는 얼굴이 원래대로 하얗게 돌아왔다. 다른 아이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어 돌아왔다. 과연 두 아이 중에 어느 아이가 아빠 말대로 굴뚝 청소를 했을까?

유대인 아버지의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로운 유대인 아버지는 생각한다. “얼굴이 하얀 놈은 굴뚝 청소를 마치고 얼굴을 씻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얼굴이 시커멓게 그은 놈은 굴뚝 청소를 하지도 않고 아빠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겁이 나서 일부러 얼굴에 시커멓게 검뎁을 칠했을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의 지혜는 다음과 같다. “굴뚝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는 미리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면 신발을 보고 판단하라.”

### 3.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라고 말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린도 전서 1:20-30)

여기에 “지혜 있는 자”란 그리스인, 즉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선비”란 말인 헬라이어 ‘그람마투스(grammatos)’는 ‘서기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마태복음 23:2; 누가복음 20:39; 사도행전 19:35), ‘율법 혹은 법률을 가르치는 자’를 지칭하기도 했다. 또한 ‘변론가’도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 드는 사람’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지칭한다고 한다(Mare).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철학자나 선비나 변사에 없는 지혜가 예수에게 있다는 말이다.(누가복음 2:42-52)

공부를 많이 한 율법박사들과 나이가 많은 부모님도 12살 먹은 소년 예수로부터 배웠을 정도로 그는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혜가 많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지혜를 열심히 배웠고, 특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삶 속에서 지혜를 배웠던 분이다. 예수님이 지혜를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겠는가?(빌립보서 2:5)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통해 참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루이스(C. S. LEWIS)도 “고난은 귀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고 말 한 적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면 지혜를 깨닫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베를린에 있는 막스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약 천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과는 일치한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혀냈다고 한다. 1)지혜자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2)지혜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 3)지혜자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 연구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생을 하며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만약 당신이 정직한 구도자가 아니라면 세월만 죽이는 방랑자나 시니컬한 냉소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아는가? 특히 냉소자는 구도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냉소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나 목마름이 없는 자기를 방어하기에 바쁜 사람이다. 냉소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정직한 질문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냉소자는 명확한 진리마저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직한 구도자인가 아니면 시니컬한 냉소자인가?

만약 당신이 구도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라면 천하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쉽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은 많으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전략적 사고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말만 앞세우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생

을 죽도록 하고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자인가 아니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바라기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정직한 구도자가 되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자가 되기 소망한다.